

# 「유스파」비데, 품질로 루브르를 넘다

파리 루브르박물관이 선택한 유스파 비데,  
품질로 세계를 넘었습니다



유스파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눔 기업입니다.  
후원상담 1588-7501, www.holt.or.kr

고객상담 080-200-8670

\* 유스파는 세계 54개국에서 품질을 인정받는 수출 1위 비데입니다.

품질로 세계를 넘다! **Uspa**

유리피연 스파비데

##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 홀트소식



## 가을 이야기

캄보디아 시웃 리도(10세)와 찐 찐 테잇(11세)에게 한국 동생이 생겼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낯설지만 성모, 영모 두 남동생들의 나눔으로 리도와 테잇은 홀트 드림센터에서 급식도 먹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결연후원으로 경찰관, 자동차 수리공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 이승엽 · 재능기부봉사자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67호 · 계간 발행일 | 2012년 9월 13일 발행인 | 말리홀트 편집인 | 민경태 발간  
위원 | 이춘근(자원개발실장), 신미숙(후원팀장), 홍미경(홍보팀장), 성경희(아동양육팀장),  
최안여(국내입양팀장), 김재현(하남시복지관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김은희(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30 주소 | 서  
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  
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홀트 이사장 | 유창기 이사(가톨릭신문사 사장) | 이해경  
이사(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임부웅 이사(세이CS 아시아  
책임자)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복상  
사 대표) |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홍현국 감사(공  
인회계사)

**본부** T.02)331-7000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1588-7501  
**미혼모자사설문터** T.080-332-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4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부천사무소 www.bcholt.or.kr T.032)322-2797

울산사무소 www.ulsanholt.or.kr T.052)243-9671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 일산요양원  
T.031)914-6631,6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200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4

입양가정지원센터 T.02)322-8104  
홀트심리상담지원센터 T.053)627-8875  
전주영어원 T.063)222-1559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미혼모자사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아름뜰 www.holtarum.or.kr T.02)334-4614  
고운뜰 · 홀트 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뜰 · 아침들학교 www.achim.or.kr T.042)585-3004  
사랑뜰 www.holllove.or.kr T.053)756-0183  
마포클로버 T.02)322-3325  
대전클로버 T.042)583-4006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 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 “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 (잠16:9)

안녕하십니까?

신임회장을 맡게 된 김대열입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풋내기 사회복지사로 긴장과 설렘 속에 입사한 지도 벌써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좋은 선배와 동료들을 많이 만나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복지 토양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홀트도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설립자 해리 홀트 씨 부부의 기독교 정신인 “사랑을 행동으로” 뿌린 사랑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 어느새 풍성한 열매를 맺는 57세의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이웃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종합복지기관이 된 것입니다. 홀트는 그동안 소외된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고 입양 후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사후관리에 힘써 왔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혼모 지원,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학 지원,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 지원, 장애인들의 영원한 보금자리와 재활을 위한 치료 및 자립 훈련 · 교육, 맞벌이 부부와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보육사업, 최민국 캄보디아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홀트가 이러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관심을 가진 많은 후원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입니다. 특히 오랜 벗으로 함께 해주신 홀트 전국후원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직원들에게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2년 7월 24일 홀트 신사옥이 건립되었습니다. 1968년부터 한국 아동복지사업의 터전이었던 홀트사옥(마포구 합정동 소재)이 2009년 도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보상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좋은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선배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유능한 많은 홀트 직원들과 협력해 음지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이웃들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더 큰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리며 고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올림



# 막내아들의 생모에게, 그리고 세 아들에게 띄우는 짧은 편지

막내동이 건일이 첫 돌을 준비하며 엄마 오수진 씨는  
일년 전 오늘을 기억할 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조심스레 편지 한 장을 띄웁니다.



## 내 막내아들의 엄마에게

당신을 불러놓고 보니, 또 이렇게 가슴 저 편이 시려오네요.  
 오늘, 당신의 첫 아들이 이 세상에서 일 년을 살아 건강하게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며 뽀뽀한 아들을 내게 주시려고 당신은 일년 전 오늘 새벽, 아무도 손  
 잡아주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길고 막막한 시간을 견뎌냈을까요.  
 당신의 첫 아들이자 내 막내아들인 건일을 당신의 뱃속에 품었던 40주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갈 수  
 가 없었다는 당신...  
 그래서 일년 전 오늘, 당신의 아이를 얻을 것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당신, 그 시간을 견뎌낸  
 아이라서, 내 막내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한가 봅니다.  
 당신의 뱃속에서 잘 지켜낸 이 아이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보살피고 기를게요.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가 낳아주신 엄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되면 우리, 아프지 않은 마음으로 만  
 나기로 해요.  
 내게 아이를 보내주신 당신의 그 결정이 지금 막내아들을 향한 내 사랑에 비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크  
 고 깊은 사랑이었음을 꼭 가르칠게요.  
 오늘,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해 있듯이, 당신의 마음도 내 막내아들과 닿아 있음을 느낍니다.  
 내 막내아들을 위해서라도 그 마음 평생 놓지 않고 살아주세요.  
 그리고 울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막내아들의 엄마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당신 첫 아들의 엄마 올림

오수진 씨는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연약했던 자신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씩씩하게 만들어준 세 아들. 미안하기도, 고맙기도 한 든든한 첫 아들 준일(17)과  
 가슴 진통으로 생후 128일에 만난 애교쟁이 윤일(4), 마음에 여유를 품게 해준  
 귀여운 막내동이 건일(2)이는 엄마 오수진 씨에게 있어 최고의 희망이자 자랑입니다.

## 사랑하는 세 아들, 준일·윤일·건일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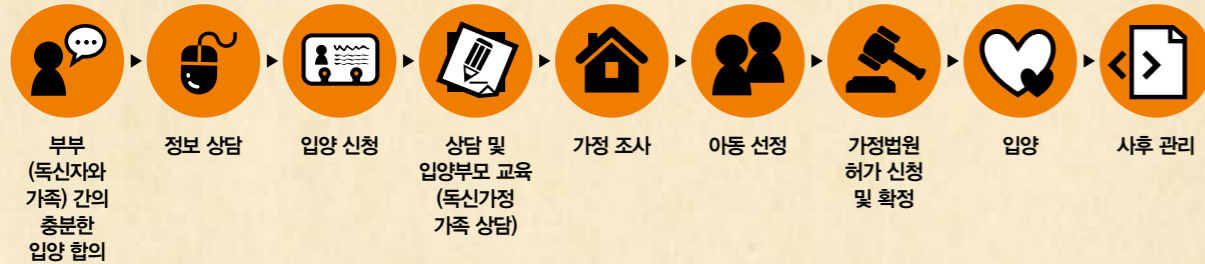
엄마는 이렇게 너희 셋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내 꿈을 좇아 살았던 25년 남짓, 외동아들  
 의 엄마로 살았던 13년, 두 아들의 엄마로 살았던 2년, 그리고 세 아들의 엄마로 살아 온 8개월 남짓 등 엄마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너희들로 인해 점점 채워지는 느낌이란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내게 가장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을 준 의젓하고 착실한 큰아들 준일아!  
 16년을 자라는 동안, 공부하고 일하는 엄마를 둔 탓에 언젠가부터 책상 앞에 앉은 엄마의 뒷모습을 사랑하게 된 아  
 들... 그 아쉬움 때문인지 너는 동생들을 등어 아닌 활짝 열린 가슴으로 안아주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더구나. 시간  
 에 쫓기는 고등학생이면서도 늘 동생들을 먼저 챙겨주고,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에 소홀하지 않은 네가 엄마는 눈물  
 나게 고맙단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네 꿈에 엄마는 가장 큰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준일아, 알고 있  
 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든 너는 엄마 삶에 가장 믿음직한 친구라는 거...  
 딸처럼 예쁘고 애교 만점인 둘째 아들 윤일아!  
 내 어린 시절과 너무 닮은 네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던 때도 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만큼 시간이 흘렀네. 가녀린 모습만큼이나 곱고 여린 내 아들. 정도 많고, 웃음도 많고, 눈  
 물도 많고, 예쁜 눈빛을 가진 내 아들... 윤일아! 준비할 겨를 없이 갑자기 생겨난 동생 때문에 네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마음고생, 그런 아픔을 알리기 위해 설 새 없이 눈을 깜빡이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리고 잘 이겨내줘서 정말 고마워!  
 건강하고 씩씩한 셋째 아들 건일아!  
 너무 늦게 엄마 품에 안긴 탓에, 너를 끊임없이 자라게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지는 내 막내아  
 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를 뱃속에서 잘 보살펴주신 분, 그리고 네가 우리 집 막내가 되기까지 6개월  
 동안이나 따뜻하게 안아주신 여러 분들, 엄마는 그 모든 분들의 큰 사랑 덕택으로 네가 이렇게 건강하고 똑  
 똑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는다. 윤일 형이와는 평생 친구 같은 동생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다른 사람  
 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생기더라도 윤일 형이와 서로를 보듬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수월한 곳이  
 될 거야. 함께 잡은 손을 오래오래 놓지 말아야 해.  
 자랑스러운 아들들아! 멋진 내 집이 없어도, 큰 차가 없어도,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엄마는 이 세상 최고의 부자  
 란다. 엄마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어떤 장소에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엄마가 가장 큰 목소리로 자  
 랑할 수 있는 너희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은 앞으로 엄마가 더 많은 노력과 사랑으로 채워  
 나갈게. 마지막으로 준일·윤일·건일, 하나같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엄마는 간절히 바란다.

2012년 11월 28일  
-사랑하는 어머니

# ‘입양’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2012년 8월 5일 입양특례법 개정 후 변경된 입양절차와 입양부모 자격을 안내합니다.

## + 입양 절차



##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약물중독과 알코올중독 검사 결과 포함), 신용정보조회서,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재산관계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서류 제출)

## + 양친이 될 자격 입양특례법 제 10조

-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 \*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시행규칙 제4조)

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25세 이상 45세 미만

\* 변경된 입양특례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양 절차 문의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02-331-7000 지역별 1588-7501

# 남의 아이



입양은 혈연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1588-7501 [www.holt.or.kr](http://www.holt.or.kr)



## 기저귀만 만져도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 찬이 대장은 무응답

찬이를 보는 순간 역대 최고로 무더웠던 올 여름이 더 뜨겁게 다가왔다. 작은 몸, 어디 한 군데만 다쳐도 속상한데 배와 허벅지를 뒤덮은 테이프와 옆구리에 찬 배변주머니가 올 여름 찬이를 더 괴롭혔을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얼마나 덥고 답답했을까. 속 시원하게 떼어주고 싶은데 보는 이의 마음과 달리 찬이의 대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가 힘든 찬이

어른들이 아이를 볼 때 인사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라”고 말씀하신다. 그만큼 ‘이 세 가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며, 생명과도 연관된 중요한 일이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아이가 대견하고 감사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찬이(가명, 10개월)에게는 간단해도 보이고 당연하게도 보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생후 3개월부터 찬이를 돌보아 온 윤군자 위탁어머니는 찬이가 예민하고 민감해서 잠을 잘 못 잔다 했다. 열고 닫는 방문 소리에도, 창 너머 들리는 차 소리에도, 함께 누워있던 위탁어머니가 잠깐 뒤척이는 소리에도 별떡 일어난다. 분유도 먹는 양보다 토하는 양이 더 많아 뽀뽀 마를 날이 없었고, 변은 며칠이 지나도 콩알도 안될 만큼 비치는 흔적만 보였다. 잦은 토로 입원도 하고 배변 불규칙으로 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일시적 관장이나 수액만 처방받고 “아직 어리다 더 크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먹이라”는 답변만 받은 것이다. 자고 먹고 싸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보니 찬이는 또래보다 앙상하고 힘이 없어 보였다. 여러 측면으로 찬이를 지켜본 홀트의원에서 다른 종합병원으로 검사를 의뢰해서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

### 원인 모를 가성 장폐쇄증

찬이의 병명은 ‘가성 장폐쇄증(intestinal pseudoobstruction)’. 장 운동에 영향을 주는 신경이나 근육의 이상으로 유발되는 병이다. 실제로 대장 운동량을 알아보는 검사에서 일반 아기들의 경우 섭취한 약이 1시간이 지나면 대장 끝에 온다지만, 찬이는 오전 10시에 먹은 약이 오후가 되도록 대장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14시간이 지나야 약의 일부분이 대장에 왔을 만큼 대장 활동이 전무한 것이다. 찬이는 바로, 소장을 끌어 배 밖으로 빼는 수술을 받았다. 우선 변을 배출해야 토하는 증세도 줄어들고 성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 후 2달도 안 돼 찬이는 2kg 가까이 살이 찘다. 핏기 없고 늘 힘없어 보이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움직임도 많아졌다. 앙상했던 팔과 다리도 제법 통통한 모습으로 이제야 10개월 아기의 모습을 쫓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급한 것만 해결한 상태일 뿐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록 소장을 통해 배변을 배출하고 있어도 밀오(항문) 액체나 점액이라도 나오는 기색이 보여야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후 원인에 따른 수술을 해야 원래 기능을 찾아줄 수 있다. 그런데 찬이의 대장은 한겨울 꽁꽁 언 수도처럼 물 한 방울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일자별로 체크한 배변 기록 2 허벅지를 가득 덮은 테이프들



3 장폐쇄증으로 힘들어 하는 찬이 4 위탁어머니와 함께 행복해요

### 기저귀만 벗겨도 움찔하는 아이

찬이는 기저귀만 벗겨도 자지러지게 울었다. 배변을 못할 때도 감각이 없어 불편함을 모르던 찬이였는데... 수술할 때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튀어나온 배변주머니가 싫어서인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배변주머니 때문에 냄새도 심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배변이 새어나와 옷 버리기도 일쑤예요. 마음대로 뒤집고 기고 해야 하는데 주머니가 터질까봐 아무것도 못 하게 하니 찬이도 답답하죠. 주머니가 잘 빠지지 않게 테이프로 이렇게 동여매니 땀피도 나고 이번 여름 찬이가 너무 고생했어요.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할 텐데... 말 못하는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까...”

찬이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윤군자 어머니는 17년간 위탁모로 봉사하며 여러 장애 아동들을 정성으로 돌보아 오셨다.

찬이를 보는 동안 내 배가 답답하고 허벅지가 꼭 메인 듯 불편했다. 울음이 가득한 찬이의 눈을 보기가 미안했다. 저 하얀 테이프만 어찌 뺄 수 있어도 좋으련만, 아니 저 소장만 안 나와도 좋으련만, 아니 배변이 나오면 되련만... 참 쉽고도 쉬워 보이는 ‘옹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찬이 때문에 알게 되었다. 제발 겨울은 넘기지 말아야 할 텐데... **홀트**

글\_김은희·홍보팀



###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정민이는

구순열(입술갈림증)로 수술한 상처가 희미해질 만큼 시간이 지나자 정민이도 부쩍부쩍 자라고 있습니다. 수술 뒤 먹는 것도 소화를 시키는 것도 좋아져 키도 몸무게도 많이 자라 이제는 홀트일시보호소의 큰형님 서열에 올랐답니다! ^^. 멋있어진 정민이, 이제 부모님 품에 안길 날만을 기다려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02-331-7073~4

www.holt.or.kr

기업은행 048-036405-04-014



## 미래가 없는 아이에서 의사가 되고픈 아이로, 슬레이홍이 자랍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지역에 위치한 트라피앙 안찬지역(Trapeang Anchanh)은 프놈펜 시내 빈민 지구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캄보디아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대규모로 강제 이주시킨 슬럼지역입니다. 지역 내 기반시설이 빈약할 뿐 아니라, 강제 이주된 이주민들이 지은 집들은 임시 가건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프놈펜 시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외곽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실직한 이후 구직하지 못한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쓰레기를 줍거나 구걸하기 위해, 그리고 공장 등의 일터로 향하기 위해 사람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캄보디아의 학교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는데 오전반은 7시부터 시작됩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 수업하기가 어려운 정오 시간대에는 수업이 없고, 오후 1시를 넘어야 오후반이 진행됩니다.

눈이 깊고 맑은 한 소녀  
한 소녀에게 쏟아지는 강한 태양  
한 소녀가 짙어진 보이지 않는 짐  
학업보다 생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녀

“저는 밧 슬레이홍(Vat Sreyhong · 9살)입니다. 트라피앙 안찬에 5살 때 왔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로 가시곤 연락이 없다고 해요.”

이곳으로 이주한 지 5년 된 눈이 깊고 맑은 밧 슬레이홍은 트라피앙 안찬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작고 낡은 가건물에서 어머니, 할머니, 고모, 삼촌, 사촌들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아홉 명의 대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슬레이홍이 태어나기 전 돈을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가서 10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슬레이홍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슬레이홍 가족의 생계는 할머니의 구걸과 어머니와 아직 10대인 고모, 삼촌의 공장 및 건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라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동생도 돌봐야 되고요. 취미는 독서예요. 책을 읽으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른 아침 슬레이홍은 어머니와 출근 준비를 하는 가족들을 돕습니다. 아침식사라고 하기엔 음식도 변변치 않고 모두 함께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서로를 위해 조금씩 아껴 나눠 먹습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밥이 남을라치면 배고플 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보관해둡니다. 8월, 9월은 방학기간이라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만 지내야 합니다. 할 일 없이 마냥 평상에 앉아 친구들을 기다리며 동생을 돌보는 것이 슬레이홍의 아침 일

과입니다. 취미가 독서라고는 하지만 읽을 수 있는 책은 고작 홀트드림센터에서 나눠준 교과서뿐. 슬레이홍은 오후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홀트드림센터 방과 후 수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홀트드림센터를 다니기 전까지는 공부를 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기가 힘들어 공부하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 슬레이홍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홀트드림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맛있고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슬레이홍에게 하루 중 가장 배부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점심은 슬레이홍에게 단지 시간이 되어서 먹는 밥이 아닌, 희망입니다. 희망을 먹은 슬레이홍은 센터 앞에서 친구들과 고무줄놀이, 술래잡기, 숨바꼭질 등을 즐깁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놀 수 있는 이 시간 또한 슬레이홍에게 행복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홀트드림센터에 다니게 된 후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점심, 교육, 영어, 학용품, 문화, 건강 등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홀트드림센터의 오후반 방과 후 교실이 시작됩니다. 오후 시간은 슬레이홍이 많은 걸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홀트드림센터의 방과 후 교실에서는 영어, 미술, 체육, 위생 보건,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홍과 동생들



(위) 공부가 즐거운 슬레이홍 (아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급식시간

담당 선생님은 슬레이홍이 홀트드림센터에 참여한 이후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앞자리에 앉으며 수업 태도 또한 같은 반 아동들의 모범이라고 합니다.

“학교와 홀트드림센터를 갈 때 빼고는 동생을 돌보고 집안 일을 해요.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면 고모를 도와 시장에 나가 계란 파는 일을 도와드려요.”

슬레이홍은 아직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고 싶지만 가족의 일을 돕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가족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집안일과 고모의 계란 장사를 돕고 어린 동생을 돌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지내다 보니 슬레이홍은 지금까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 대다수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슬레이홍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는 항상 망설이며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어렵사리 슬레이홍이 입을 열어봅니다.

“제 꿈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슬레이홍이 끝까지 의사의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의사라는 단어에 눈을 반짝이며 희망을 가져보는 슬레이홍에게 어른인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되물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러 와주시고요, 저는 그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빌겠습니다.”

밤 슬레이홍은 홀트드림센터와 아동결연 프로그램을 만나 교육지원 및 기초생활 지원, 급식 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가깝지만 멀기도 한 이곳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빈민지역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밤 슬레이홍이 여러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olt

글 \_이태경 홀트드림센터장



- 신발정리 (100)
- 방충제정리 (100)
- 아빠신발 닦기 (500)
- 성경이 (500)
- 아침침옷 (100)
- 저녁침옷 (200)

용돈 리스트

## 결연 아이도 내 아이도 자라게 하는 행복한 기부

“테잇 형이는 아기 때 머리를 다쳐서 아프대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엄마가 얻어오는 걸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대요!”

“형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성모의 이야기를 들던 아버지 유혜연 씨가 묻자 “3만 원이면 돼요! 3만 원이면 형이가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대요!”

성모가 테잇 형이라 부르는 찐 찐 테잇(11세, Chen Chan Teit)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주의가 산만하고 기억력이 떨어져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테잇. 생후 7개월에 머리를 심하게 다친 후 지적장애가 생긴 것이 아닌지 어머니는 추정할 뿐, 남의 집 지붕 처마를 집 삼아 살고 있는 모자에게 병원검진은 먼 이야기이다. 테잇은 홀트드림센터 선생님들의 도움과 결연 후원으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이자 입양부모인 유혜연·이덕희 씨는 두 아들 영모·성모가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커가길 희망하며 자녀들과 여러 차례 기부활동에 참여해 왔다. 비록 초등학교 3학년 성모와 6살인 영모가 아직 돈의 개념은 모르지만, 돈이 자신이 필요한 걸 살 때도 필요하지만 누군가 도울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으며, 이번 해외결연후원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성모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레고 하나 값도 안 되고 자신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비의 1/3도 안 되는 3만 원으로 한 형이 학교도 가고, 먹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자기 통장을 기꺼이 내놓더군요. 아직 어린 영모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리도 형이를 위해 기도해야지’라며 뭔가 돕길 원하는 것 같아요!”

유혜연 씨는 결연기부는 결연 아이도 자라게 하지만 내 아이들도 아름답게 성장하게 한 다며 흐뭇해했다.

성모와 영모는 홀트 해외결연 첫 후원자가 되었다. 그리고 성모와 영모의 고사리 나눔 덕분에 테잇 형과 리도 형도 학비 걱정 없이 매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캄보디아에는 학교 수업이, 책가방과 노트가 그리운 아이들이 많이 있다. #Holt

글 \_김은희·홍보팀

### ♥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해외아동 결연후원

- 결연후원금 매월 30,000원
- 결연후원금은  
교육 및 보호 (방과후 교실· 청소년주말학교 운영)  
보건 및 의료 (보건위생교육· 건강검진영양지원, 영양지원)  
급식, 정서지원 (아동 및 가족 상담)에 사용됩니다.
- 해외아동 결연후원으로 결연아동에 대한 정보와  
편지 교류, 만남의 기회도 가져보세요.
- 결연후원 문의 02-331-7075 (후원팀)  
이메일 [sponsor@holt.or.kr](mailto:sponsor@holt.or.kr)  
결연후원 신청  
[www.holt.or.kr](http://www.holt.or.kr) ▶ 후원신청 ▶ 해외후원



#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워준 365일

## 2011년 7월 29일,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도착했던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의 첫날 밤은 더울 거라고 너무 각오를 하고 가서 그런지 오히려 추위에 떨다가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캄보디아에서 머물던 1년 내내 그다지 덥지 않았던 날씨가 출국을 앞두고 비로소 덥게 느껴지고, 도착해서부터 잘 먹었던 현지 국의 독특한 향내가 귀국 티켓을 끊고 나니 갑자기 비위에 맞지 않고, 그 전까지는 잘만 잤던 간이침대는 불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던 경험들을 하면서 지난 1년간 내가 참 긴장하며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홀트아동복지회 첫 해외파견봉사자란 이름으로 홀트가 첫 해외지원사업을 펼치는 불모지에서 아동 190명 규모의 홀트드림센터 건립을 돕고, 급식과 방과후 교실,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진행될 수 있기까지 함께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1년이 아니었을까.

글쓴이 이소민 씨는 2011년 7월 29일부터 2012년 7월 28일까지 홀트캄보디아 사무소 및 홀트드림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 지원을 위해 해외파견 자원봉사로 홀트회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간의 노고와 열정, 보여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대체 다들 왜 이렇게 가난한지’ 속상해서 눈물이 나온 시간들

캄보디아 정부가 빈민가 철거민을 이 외딴 트라피양안찬 지역으로 강제 이주 시키면서 준 보상이라곤 이 지역의 조그만 땅 한 뼨뿐이었다. 주민들은 집 지을 돈이 없어 빚을 내면서 열악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나마도 빚을 갚지 못해 한 뼨 가진 땅마저 뺏기는 일도 허다했다. 한 달 내내 공장에서 야근하며 일해도 자기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 수준이고 그마저도 나이 들거나 몸이 아프면 일할 수조차 없다.

홀트드림센터 아이들 중에도 고아, HIV 보균자, 장애인, 노숙자 등 사례를 꼽기도 어려울 만큼 힘든 아이들이 허다하다.



아이들 가정방문을 하고 파일을 정리할 때면 ‘대체 다들 왜 이렇게 가난한지’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찢어진 교복을 입고 맨발로 등교하는 아이들, 그런 교복마저 없어서 아예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다 해도 자전거로 1시간 거리의 중학교에 가기란 너무 힘들어 대부분이 중도에 포기하고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기 일쑤였다.

## 참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아이들

얼마 전 상의에 국을 쏟은 한 아이를 씻긴 후, 입고 있던 티셔츠는 빨고 대신 입으라고 깨끗한 티를 줬더니 한사코 입지 않겠다고 도망을 가버렸다. 유독 그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걸 빨리 체득한다. 좀 어리광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도 될 텐데, “부모님이 학교 그만두고 공장에 가라고 할까봐 겁나요” “엄마가 또 시내에 구걸 나가자고 할까봐 너무 싫어요”라며 걱정하듯 말하는 아이들. 겨우 초등학생인데... 이곳 아이들은 참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다.

그런 아이들에게 홀트드림센터에서 주는 따뜻한 점심식사와 수업, 작은 관심 하나 하나는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었다. 괜히 정해진 듯 보였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아이들이 느끼며 변해가는 모습은 나에게도 뿌듯한 감동이었다. 처음에는 수업에 시큰둥했던 아이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며 “빨리 시험 치자”고 선생님을 조른다. 학교 다니기를 포기했던 아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 집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위어 보이던 아이들이 홀트드림센터에서 매일 점심밥을 몇 그릇씩 먹더니 어느새 발육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어려운 형편에도 항상 밝게 웃고 이따금씩 들꽃이나 그림을 건네주며 수줍게 웃던 아이들. 이 예쁜 아이들 하나하나의 미래를 다 어떡하나 싶은 생각에 귀국하는 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비행기로 겨우 5시간 왔을 뿐인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냉장고마다 음식이 가득하고 손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서도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세상에 나도 다시 적응해가고 있지만, ‘어른으로서의 책임’, ‘가진 자의 책임’을 계속 잊지 않을 생각이다. 마치 먼 세상 얘기처럼 느껴지는 그 빈곤은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을 뿐, 사실은 손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

글 \_ 이소민 · 캄보디아 파견 자원봉사자



1 작별 인사를 나누는 홀트드림센터 아이들 2 3 캄보디아 아이들의 배움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 가정조사를 펼치는 이소민 봉사자

# 특별한 아이, 특별한 축복!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됩니다

24주 750g으로 태어난 환희, 뇌의 일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주영이에게 부모가 생겼습니다! 사실,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머무는 장애아동들이 부모님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에 환희에서 주영이까지, 홀트아동복지회에게 무더운 8월은 축복의 8월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환희와 주영이는 병원을 갈 때도 어린이집에 갈 때도 혼자자 아닌, 두 손 잡아 높이 올려줄 부모가 있습니다!



## ♥ 750g 환희가 아빠 엄마를 만나는 날

환희(가명, 7)는 2006년 24주 만에 750g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많은 사투를 벌인 끝에 살아남게 된 특별한 아이입니다. 워낙 작은 미숙아로 태어나 뇌성마비, 소두증, 발달지체 등 많은 장애를 가지는 바람에 입양가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적으로 두 가정이 입양의사를 표하기도 했지만 심각한 장애 때문에 환희는 두 번이나 입양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환희는 2009년 6월부터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위탁가정을 떠나 2년이 넘는 집중 재활치료와 보육선생님의 사랑으로 환희는 일반 유치원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눈에 띄게 좋아져 환희를 위한 입양부모 찾기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희의 양부모님 Snyder, Marvin & Tracy 부부는 미국 오하이오에서 3명의 친자녀와 입양한 한국 자녀 2명의 총 다섯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입양한 막내딸이 환희와 같은 소두증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키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입양을 또 결정했는지 양부모님께 여쭙었더니 환희의 삶이 지닌 도전과제들이 녹록치 않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어머니 Tracy 씨는 "막내딸을 키우면서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의료적인 도움을 누구보다 많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장애 아이를 키우면 시행착오 없이 더 좋은 치료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입양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장애로 인해 입양가정을 못 찾은 아이들의 사진을 프린트해 붙여놓고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부부는 누구보다 환희가 마음에 남았다고. 잠시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니지만 환희에게는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걸 부부는 알았다고 합니다.

환희는 눈앞에 선 양부모에게 스스럼없이 안기며 좋아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아왔던 터라 낯설지는 않은 듯 환희는 양부모님 얼굴과 손을 쓰다듬어봅니다. 환희를 키우는 보육선생님과 홀트 가족들이 눈물과 박수로 이들 가족의 탄생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환희가 멋진 청년으로 성장해 다시 홀트일산복지타운에 와서 자원봉사 하게 될 날을 상상해봅니다.

## ♥ 뇌갈림증 주영이와 사랑에 빠진 가족

환희가 입양된 바로 다음 날 홀트일산복지타운에는 있던 주영이도 양부모님 가족을 만났습니다. 주영이 양부모님은 주영이를 품에 안아보기를 어찌나 기다리셨는지 1년 반이나 되는 오랜 기다림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주영이를 만나러 오는 길, 양부모님은 엄마의 부모님, 그리고 두 명의 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랑 또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었지요. Sharer, Andrew & Jill 부부는 30대 젊은 부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임으로 이티오피아에서 첫 아들을 입양한 후 다음해에 기적적으로 친아들을 낳게 되어 연년생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남 돕는 일이 행복해 직업도 간호사를 선택한 양어머니는 어느 날 입양복지기관에서 주영이가 부모님을 찾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주영이와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할 만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주영이는 선천적으로 뇌갈림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뇌의 일부가 없다 보니 시각장애와 편마비 등의 증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후 23개월인데 아직 혼자서 걷지 못합니다. 하지만 양부모님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으로 주영이도 여느 아이들처럼 두 발로 세상을 딛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special needs are  
special blessing*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외입양을 담당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일을 통해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장애를 가진 아이와 삶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특별한 사랑을 품은 그분들은 내 삶의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사회의 시선은 '불쌍하다' '안됐다'이지만, 홀트의 보호 아래에서라면 오히려 그들의 장애로 인해 '더 준비되고, 더 사랑이 많으며, 더 마음이 따뜻한 좋은 가정'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장애가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장애를 special needs라고 표현하고, special needs are special blessing 이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매일 이 말을 확인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글\_유덕진 사회복지사·국외협력팀



\* 필립 라페리 : 본명 강기영(1974년 4월 20일 추정), 출생 후 부산 중부경찰서 부근에서 발견, 부산 아동일시보호소와 고아원에서 생활하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로 입양됐다. 1999년 한국에 왔으며, 2003년 SBS-TV '잘먹고 잘사는 법' 외 리포터와 가수로 활동했다. 2009년부터 홀트입양가정지원센터 근무 중이다.



#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참 좋아요”

방송인으로, 가수로 끼와 재능을 펼친 프랑스 입양인 필립 라페리(40, 한국명 강기영) 씨는 한국에 머문 1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홀트아동복지회 직원으로 함께한 3년이라고 말한다. 더 늦기 전에 프랑스에 계신 양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8월 퇴사를 결정한 필립 씨. 대한민국은 자신의 고향이기에 곧 다시 온다고 약속한 그에게 가장 행복했던 지난 3년의 시간을 물어보았다.

● 어떻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4~5년 정도 홀트에서 프랑스어 통역 자원봉사를 했어요! 영어를 못하는 프랑스 입양인들이 자주 오다 보니 그들을 돕기 위해 홀트에서 저에게 입사 제의를 한 것 같아요. 2009년 자원봉사자에서 직원이 되었지요.

● 힘든 점이 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무실에서 저만 혼자 남자라 힘든 점이 있긴 했지만 ^^) 일하면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어요. 다만 첫 친가족 상봉(친가족과 입양인이 만나는 자리)에서 입양인 본인보다 더 울어서 제대로 통역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울지 않는답니다.

● 입양인 100명의 친가족을 찾아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부모를 찾지 못했어요. 입양인들이 가족을 만날 때면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부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럽지 않아요. 그 분들이(친가족) 날 찾고 싶지 않다 해도 괜찮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엄마이고 아빠이고 이들이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생각들이나 경험들이 홀트에서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전 늘 입양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로(친가족과 입양인)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만나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줘요. 한국 어머니는 만나면 끌어안고 만

지고 쓰다듬고, 아버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 입양인들에게는 낯설거든요. 특히나 아버지의 태도에 '자신이 싫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입양인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주죠. 그냥 많은 한국 남자들의 표현이 그렇다고.

● 필립 씨가 입양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물론이예요. 입양인들이 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와서 겪는 많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넌 입양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라는 식의 자기변명이 저한테는 안 통하죠. 그들은 그런 자기변명으로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역시 입양인이기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제 조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일거죠. 그 부분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 입양인으로서 입양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같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오해는 어떤 부분일까요?

입양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아무래도 입양의 부정적인 면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인은 대다수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하지만 힘든 입양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갈등이나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듯 입양가정도 마찬가지죠. 입양이 잘 되고 입양부모와 잘 적응한 경우는 거의 친부모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대부분 친부모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양가정 내에서 힘들었거나 혹은 힘들지 않았더라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 경우이고, 또 다른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프랑스로 입양된 입양인



이 1만 2천여 명 정도인데 프랑스의 입양기관으로 한국의 부모를 찾겠다고 문의가 온 경우는 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한국말을 배우고자 왔었는데 3~4년 정도 살면서 든 생각이 '내가 어디에 살든 죽을 때는 꼭 한국에서 죽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한국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개인주의인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어릴 때는 프랑스 고유의 문화 때문에 제 자신보다 친구를 더 챙긴다며 부모님께 꾸중을 들은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자연스럽게 고전 그런 점이 정말 좋아요.

● 그런데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오로지 양부모님 때문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모두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으시죠. 아직도 일년에 서너 번 씩 여행을 다니실 정도로 활동적이시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면서, 지금이 아니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밖에도 여러 여건상 지금이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구요.

● 마지막으로 지난 3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감사한 시간! 한국에서 방송일도 하고 가수 활동도 해보는 등 즐거운 경험을 참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에 남는 일은 홀트에서 일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던 시간들이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셔도 입양인 뿌리 찾기를 돕고 싶어요. 그리고 자식으로서 충분히 도리를 다하고 3년 후 쯤, 부모님이 특별히 힘들어 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Holt

글 \_ 신혜진 · 재능기부봉사자



# 한국 사랑을 마음에 아로새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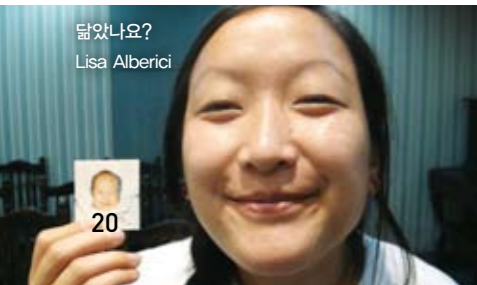
## '2012 Happy Trail in Korea'



우리가 만들어어요! Helle, Klye, Jonathan



수료증을 받는 Yann Seywert



뒀었나요?  
Lisa Alberici

### Jonathan Philip

Groat \* 미국

한국명 | 조준일(23세)

직업 | 학생

친구·멘토들과 함께 한국에 여러 번 와본 경험이 있던 터라 나는 이미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방문은 그런 마음이 더 강화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한국 문화를 더 사랑하게 되네요.

제가 아기일 때 어떻게 자랐는지, 위탁부모는 어떤 분이었는지 평소 궁금해했는데 알게 돼 기뻐어요. 또한 한국과 한국 유산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무척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 Helle Shin

Andersen \* 덴마크

한국명 | 신용아(28세)

직업 | 마케터

### Yann Seywert

\* 프랑스

한국명 | 유준덕(29세)

직업 | 치기공사

2년 전 한국에 왔을 때 '나의 나라'에 있다는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정도 많고 공손한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래 내 아이들에게 아빠가 누구인지 이야기해주고 싶어 다시 찾은 모국에서 전 날아주신 아버지까지 만나 조금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살아본 14일, 홀트 모국연수는 모국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상상만 해오던 한국에 직접 와봄으로써 많은 궁금증이 해소된 시간이었습니다. 늘 제 물음에 대답해주시던 아버지께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2년 전 돌아가셔서 제가 느낀 것들을 나눌 수 없다는 게 많이 가슴 아프네요.

### Lisa Alberici

\* 프랑스

한국명 | 김현숙(25세)

직업 | 치과 병원 근무

### Kee-Ok Moinet

\* 벨기에

한국명 | 장기옥(37세)

직업 | 교사

4개월에 입양되어 37살이 되었고, 자상한 남편, 귀엽고 똑똑한 두 딸과 화목한 가정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제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찾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괜찮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는 벨기에에 있으니까요. 한국을 방문한 것은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23일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이 작은 무대로 변모했다. 기타를 튕기며 부르는 하모니, 멋진 발차기가 일품이었던 태권도 시범, 한국 가요를 부르고, 수줍은 듯 한복을 입고 서투른 큰절까지... 2012 Happy Trail in Korea 모국연수 수료식은 축제의 장이었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모국 한국을 떠났던 22명의 입양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모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이곳 한국에 왔다. 2주간 머물렀던 모국의 품을, 기억을, 22명의 입양인들은 이렇게 풀어놓았다.



### Nicholas Pyo

Ruszak \* 미국

한국명 | 표갑수(26세)

직업 | 엔지니어

나와 한국과 연결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홀트 모국연수는 내가 살면서 갖고 있던 많은 의문과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누군가에게 입양되었고 다 같은 한국 태생이라는 공통점이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홀트를 통해 입양된 입양인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입양인에게도 이런 좋은 기획의 문을 열어준 홀트에 감사드립니다.

### Jon William

Breiffuss \* 미국

한국명 | 전상우(25세)

직업 | 교사

### Katja Feier

Gadegaard \* 덴마크

한국명 | 홍은숙(40세)

직업 | 일러스트 작가

나이 마흔이 넘어서야 저의 모국, 한국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궁금했던 친부모나 입양 과정도 알게 되었고, 내가 자랐던 고아원도 가보았습니다. 홀트 모국연수는 매우 교육적이었으며, 한국을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여기게 했고, 나와 한국을 연결시켜주었습니다.

9살, 늦은 나이에 입양되었습니다. 다행히 친자매들도 같은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는 기억 속 아버지와 고모를 만나 무슨 일이 있어 우리를 입양 보냈는지 묻고 싶었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한국이란 나의 나라를 알았고, 이 경험은 저에게 좋은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남자친구와 꼭 다시 와보고 싶어요.

### Jee Ae Dieu

\* 벨기에

한국명 | 강지애(33세)

직업 | 영어교사

### Lucile Morin

\* 프랑스

한국명 | 정혜림(22세)

직업 | 유치원 교사

친부모님을 만나길 원했고, 같은 입양인을 만나길 원했던 두 가지 목적이 모두 이루어진 여행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부산을 여행하고 친가족도 만났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인 음식, 한국어 모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어를 배워 친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홀트아기와 Kee-ok Moinet



전통체험을 하는  
Nicholas, Katja



한국 요리를 배우는  
Jee Ae Dieu



홀스테이 국내입양 아이들과 함께 Lucile Morin

Hilary Short



**Hilary Short \* 미국**  
**한국명** | 박지혜(27세)  
**직업** | 법률사무소 사무원

● 모국연수는 제 인생을 변화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 하루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가득찬 한국에서의 시간들. 한  
 ● 국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 내 마음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멋진 기회였습니다.  
 ● 나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한 모국 연수, 감사합니다.

**Lisa Post \* 미국**  
**한국명** | 구세영(34세)  
**직업** | 초등학교 교사

**Kim Dubois \* 벨기에**  
**한국명** | 김상희(33세)  
**직업** | 웨이트리스

● 모국연수 프로그램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한국문화를  
 ● 배운 매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제 인생의 중요한 경  
 ● 험이었습니다.



산낙지를 먹어보는 Kim Dubois

● 한국이 이처럼 먼 곳인지 몰랐어요. 이제 한국은 제 한  
 ● 부분이 되었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해준 멋지고 놀  
 ● 라운 경험으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훌륭한 홀트 직원분  
 ● 들께 감사드립니다.

**Meeshelle Buckmiller \* 미국**  
**한국명** | 신나리(21세)  
**직업** | 회사원

**Laetitia Van Osta \* 벨기에**  
**한국명** | 원이순(39세)  
**직업** | 가족치료사

● 입양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가 딸이 태어나면  
 ● 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제 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  
 ● 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자신과 모국에 대해 물으면 뭐라  
 ● 이야기할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정확히 제 뿌리에 대해,  
 ● 나라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어머니와 Meeshelle Buckmiller

● 4살 무렵 어머니께 “내가 진짜 엄마 아들 맞아?”라고 물  
 ● 었을 때 “한국인이고 입양되었다고 해서 네가 달라지는  
 ● 것은 아니다. 내 아들인 건 변함이 없다”고 하신 어머니의  
 ● 말씀은 지금껏 나를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그  
 ● 리고 이후 내가 다르다는 차이를 찾거나 느낀 적 없이 자  
 ● 랐습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한 이번 모국연수 또한 임상심  
 ● 리학 박사과정에 입문하는 저에게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형과의 만남은 내가 정말 이해할  
 ● 수 없었던 과거의 한 부분을 연결시켜주었고, 친가족을 보  
 ● 는 시각 또한 바뀌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러  
 ● 럼 홀트 모국연수는 제 삶을 변화시켰고 한국 문화는 이  
 ● 제 내 남은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Kyle Raymond Kwon Dexter \* 미국**  
**한국명** | 권욱(29세)  
**직업** | 학생



자신의 한글이름을 써 보는 Kyle

**Malene Langeland \* 노르웨이**  
**한국명** | 한주아(23세)  
**직업** | 학생

● 과거 양부모님과 한국을 방문한 이후 첫 방문이었습니다.  
 ● 2주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훌륭  
 ● 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더 배울 수 있고,  
 ●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다시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  
 ● 각합니다.



Lisa와 Keeok, Malene

● 모국 한국을 기억하도록 그간 양부모님은 여러 지원을  
 ● 해주셨어요. 언니(입양 자매)와 만두도 자주 만들었지요.  
 ● 부모님의 권유로 언니와 이번 모국연수에 참석하게 되었  
 ● 지만 오길 잘했다는 생각해요. 이전에는 누가 나의 태생  
 ● 에 대해 물으면 부끄럽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럽게  
 ● 말할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멋진 경험, 잊지 않을게요!

**Rebecca McAfoos \* 미국**  
**한국명** | 백나리(26세)  
**직업** | 토크 기사



경주여행 중 Laetitia Van Osta

**Catherine Elizabeth Supry \* 미국**  
**한국명** | 김미영(28세)  
**직업** | 어린이집 교사

● 동생(입양 자매)과 같이 한국에 올 수 있어 너무 행복했  
 ● 습니다. 나 자신과 모국에 대해 더 좋은 시각을 갖게 되  
 ● 었고, 이제 나 자신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  
 ● 습니다.



● 동생과 같이 5살에 입양되었지만 한국에 대한 기억은 없  
 ● 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기에 평소 한국 문화, 음  
 ● 식,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행사는 그것을  
 ● 충족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Jean Sookyung Covers \* 미국**  
**한국명** | 정수경(32세)  
**직업** | 수화통역사



한국요리 선생님과 Rebecca, Catherine 입양자매

● 항상 한국에 관심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기본 적은 없  
 ● 던 터였습니다. 이번 모국연수로 내가 태어난 나라의 문  
 ● 화를 경험해 기뻐했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를  
 ● 만나게 된 건 평생 잊지 못할 감사한 기억으로 남게 될  
 ● 것입니다.

**Seimon Jang Hansen \* 덴마크**  
**한국명** | 박장군(25세)

● 항상 한국에 관심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기본 적은 없  
 ● 던 터였습니다. 이번 모국연수로 내가 태어난 나라의 문  
 ● 화를 경험해 기뻐했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를  
 ● 만나게 된 건 평생 잊지 못할 감사한 기억으로 남게 될  
 ● 것입니다.

**Sara Monaco Bartholomew \* 미국**  
**한국명** | 정수미(30세)  
**직업** | 회계부 간부



Jean, Sara 자매와 Seimon

21회를 맞는 '2012 Happy Trail in Korea'에는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 벨기에 5개국 22명의 해외입양인이 참석하여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배우며 친부모와 위탁모를 찾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아 아름다운 새생명을 가져와줘  
우리는 여기서 왔습니다  
검 검박한 마음으로 한 생명을  
기다리고  
몸 뚫어 피어 있는 한송이꽃처럼  
예쁜 아기가 태어나길 기도  
합니다

아침들을 머물렀던 한 산모가 아침들 이름으로 지은 삼행시

## 아침뜰학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어느 여름, 대전에 위치한 미혼모자시설 아침들을 찾았다. 아침들은 5월 1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미혼모대안학교를 위탁받아 6월 1일부터 '아침뜰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아침뜰학교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두 번째 대안학교로 미혼모들의 자립과 미래를 위한 밑거름 터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 아침뜰학교에만 있는 것 세 가지

오늘은 아침뜰학교의 첫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사회수업이 한창 진행이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오늘이 방학이라 생각되지 않을 만큼 교실은 학습열기로 가득 찼다.

수업 내용은 일반학교와 다르지 않지만 아침뜰학교에만 있는 이색 포인트(?)가 있었다. 첫째, 책상에 맛있는 빵과 음료수가 놓여 있고 먹으면서 수업을 듣는다는 점. 둘째, 교사 1명에 학생 2명. 무리지만 과외 수준을 뛰어 넘는 교육환경과 학생들을 최고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사진이 있다는 것. 셋째, 학생들이 교복대신 편안한 임부복을 입고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듣는다는 점, 그리고 임신·출산으로 소외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공부할 권리를 지켜준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이 자리에 없어도 신경 쓰지 않고 찾지

도 않아요! 하지만 이곳 아침뜰학교는 아침뜰 선생님들뿐 아니라 과목 선생님들도 세심히 배려해주세요. 출산으로 부족한 수업시간은 주말에 보충을 해주실 만큼 저희 입장을 잘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침뜰학교 첫 학생인 미희 씨는 아침뜰과 아침뜰학교는 ‘가족과 같다’고 말한다.

###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해준 아침뜰학교

미희(가명, 18세)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 시작되고 얼마 후 임신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점점 불려오는 배를 가릴 수 없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고, 다행히 대안학교를 알고 있던 선생님의 소개로 아침뜰에서 순조로운 출산과 함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아침뜰학교가 없었으면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기를

낳아도 공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수업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미희 씨와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성은(가명, 18세) 씨도 아침뜰학교가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고마운 점이라고 전했다.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의미 없이 수업을 듣고 오셨다면 지금은 ‘부모라는 마음이 저를 다잡게 해요. 임신으로 지치고 늘어질 때 수업만은 꼭 열심히 들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어요.”

성은 씨는 아기에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희 씨나 성은 씨 모두 어려운 가정형편이지만 둘 다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고등학생이었다면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목표도 세우게 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선 취업을 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얼굴은 옛된 소녀지만 쉬는 틈틈이 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리워하는 두 사람에게서 엄마의 냄새가 났다.

### 이제는 우리 사회가 손을 잡아줄 때

“미혼모라는 선입견이 없지는 않았어요! 과연 교육이 가능할까도 염려되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엄마가 가진 열정, 공부하겠다는 마음가짐에 놀랐어요! 임신한 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기록해서 현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올해 2월말 정년퇴직한 김갑덕 선생님은 사회와 윤리를 가르치는 재능기부 교사로 활동하고 계신다. 김 선생님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배려적 사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아침뜰학교 두 학생의 앞날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침뜰 정영선 원장님은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잘 극복하고, 또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검정고시나 대안학교제도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혹 주변 청소년들이 임신으로 학교를 중단하고자 한다면 꼭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아침뜰에는 현재 33명의 엄마와 5명의 아기가 머물고 있다. 아침뜰은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대전클로버’도 운영하고 분유·기저귀 등 아동용품을 지원하며 응원하고 있다. 미혼모들을 향한 지원과 격려가 아침뜰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면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딸이자, 엄마이자, 대한민국 시민이기에 미혼부모가 정이 꿈꾸는 행복이 우리 사회의 행복이고 미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획

글\_김은희·홍보팀

아침뜰 · 아침뜰학교 문의  
042-585-3004 www.achim.or.kr



#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가는 '중학생공부방 나누미교실'

## 공부방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

도영(가명)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무뚝뚝한 형과 살고 있다. 공부방에 다니고 있지만 성격이 소극적이고 공부에 취미가 없어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곧잘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까지 가출하면서 생활은 점차 기울고 일상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도영이는 다행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편안할 만큼 즐거워하는 도영이는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과 열정이 보여 현재 공부방에서 주2회에 걸쳐 전문적으로 미술지도를 받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

조손가정으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현수(가명)는 어릴 때부

터 장난끼 많은 활발한 아이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말수도 줄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다행히 공부방에 들어온 후 교사에게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시 예전의 밝은 현수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할머니께서 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다. 간호할 사람이 없으며 학원까지 결석한 채 밤낮으로 병간호를 할 만큼 마음이 깊은 아이다 보니 당시 가정형편상 대학은 가지 않겠다고 공부를 멀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보나온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상담을 통해 학업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고, 열정적으로 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꿈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 중학생만을 위한 공부방 '나누미교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에 등지를 든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부터 중학생공부방 '나누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지역 공부방들이 초등학교생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나누미교실은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별함을 갖고 있다.

공부방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가정이거나 차상위가정이다. 또래 청소년들은 학교 후 학원이다 과외다 하루가 모자라다 하소연하지만 빈곤 가정 청소년들은 여건이 되지 않아 가정에서 혼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나누미교실은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학교 후 보호자가 없는 오후 취약시간대 보호를 목적으로 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 캠프, 생일파티, 체육활동, 집단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부방은 매달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진도

에 맞게 예습·복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개별지도를 통해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등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장점이다.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학습 동기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10명의 중학생들이 공부방에서 저녁 9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의욕이 있고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해서 전년 대비 평균 5점 이상 성적이 향상되었다.

나누미교실은 청소년들이 꿈을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어른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이어지길 소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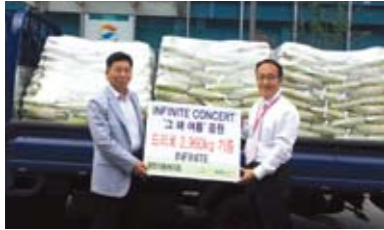
글 \_ 백수철 사회복지사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활발한 사회복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051-543-2431 www.woon-bong.or.kr

### ● 사회공헌 ●

#### 인피니트 팬클럽 '인스피릿' 쌀 기부



아이돌그룹 인피니트 팬클럽 '인스피릿'은 8월 20일 쌀 2,960kg을 우리회에 기부했다. 이 쌀은 인피니트의 성공적인 콘서트 응원차 팬들이 기부한 것으로, '인스피릿'은 지난 2월에도 쌀 3,600kg과 차약을 모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주)삼광유리 글라스락 후원



주식회사 삼광유리(www.glasslock.co.kr)는 6월 19일 우리회 보호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이윤식 전용 밀폐형 유리용기 글라스락 1천 개를 후원해주었다.

#### 이제석 광고연구소

'입양 인식개선 캠페인 광고' 재능기부 광고천재라 불리는 이제석 광고연구소에서 '입양 인식개선 캠페인' 광고 '나의 아이입니다'를 재능기부해 7월부터 서울시내 장애인버스 승강장 10곳에 후원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 ● 본부 ●

#### 민경태 회장 퇴임식

홀트아동복지회를 2007년부터 6년간 이끌어



온 민경태 회장의 퇴임식이 8월 27일 열렸다. 민경태 회장은 1982년 입사 후 30년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복지사업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 정맹진 관장 정년퇴임식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정맹진 관장의 정년 퇴임식이 6월 25일 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정맹진 관장은 1986년 입사해 26년간 아동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 제2회 홀트장학생 캄보디아 해외봉사



홀트 장학생 7명은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다녀왔다. 장학생들은 홀트 드림센터 방과 후 수업 진행과 센터, 인근 뽕은 뽕농 초등학교 페인트칠 등 환경미화 활동도 펼쳤다.

#### 2012 꿈과희망지원

##### '신나는 여름방학 리더쉽 캠프' 열려

'2012 신나는 여름방학 리더쉽 캠프'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하네테마파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꿈과희망지원을 받는 300여 명의 꿈둥이들이 참석, 미래 리더로 꿈을



키우는 자리가 되었다. 꿈과희망지원사업은 선홍보대사와 백주년기념교회, YG엔터테인먼트 후원금 3억 원으로 저소득위기가정 300명 아동에게 매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 제7회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 시상식 및 청소년 캠프 열려



우리회와 신한카드(대표이사:이재우)는 7월 20일 '제7회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 시상식'을 신한카드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선발된 10명의 아름다운 청소년에게 각각 상장과 상패, 300만 원 상당의 꿈 지원금을 수여했다. 7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아름다운 청소년으로 선발된 수상자를 초청한 '아름다운 청소년 꿈 캠프'도 개최되었다.

#### 2012 모국연수 수료식



'2012 Happy Trail in Korea'가 마포구청 주최 우리회 주관으로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모국연수는 5개국 22명의 입양인들이 한국문화를 모국을 체험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다.

#### 홀트한사랑회 숲 속 캠프



홀트입양가족모임 '홀트한사랑회'가 주최한 9회 가족캠프가 6월 8일~9일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 소재한 하프타임이마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53가족, 200여 명이 참가, 개정된 입양특례법 정보 공유와 특강 및 나눔장터, 장기자랑 등을 나누며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을 만끽한 캠프였다.

### ● 지방사무소 ●

#### 대구사무소, 백일잔치 열려



백일전문업체 <대구백일날> 후원으로 6월 18일 위탁아동들의 백일잔치가 예쁘게 열렸다. 아기들에게 추억을 선사해주신 대구백일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 부산사무소,

##### '입양, 가슴으로 넣은 사랑입니다' 강연 펼쳐



2012 원복원부산으로 선정된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체험전 행사 '입양, 가슴으로 넣은 사랑입니다'가 6월 23일 부산시민도서관 소리쇼에

서 개최됐다. 황재필 소장의 강연과 김영미 입양가족, 이태숙 위탁모가 사례발표, 입양가족 동영상(UCC) 상연회와 '아름다운 행복' 입양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도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시민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 울산사무소, 울산한사랑회 정기모임 개최



국내입양 자조모임인 울산한사랑회 7가정이 모여 6월 25일 2분기 정기모임을 가졌다.

#### 충청사무소, 입양부모교육 실시



7월 11일 대전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입양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 서구 정신보건센터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소아정신과 정경은 교수의 강의 및 양부모 우울증 검사, 입양가족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 ● 홀트일산복지타운 ●

#### 한\*이와 도\*이의 입양파티



린다동에서 생활하는 한\*이(6세)와 도\*이(2세)의 입양파티가 8월 6일 열렸다. 장애가 있더라도 가정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우리회의 노

력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두 아들이 양부모를 찾게 돼, 홀트가족이 함께 축하하고 두 아들이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길 기도했다.

#### 2012 홀트여름성경학교

2012 여름성경학교가 8월 17일, 18일 양일간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베엘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300여 명의 교인과 홀트 가족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쁨도 나누는 시간이었다.

### ● 홀트학교 ●

#### 홀트학교 방학 중 학생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예그리나 & 밤벨 음악캠프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풍물캠프, 방과 후 학교, 늘레강학교, 종일반, 경기고양직업전환센터 등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해 장애인식 개선은 물론, 방학 중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를 가졌다.

### ● 종합사회복지관 ●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여름김치 및 삼계탕 나눔 행사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7월 19일 복날맛이 삼계탕 및 여름김치 나눔 행사로 직접 끓인 삼계탕과 신선한 여름 김치를 재가장애인 및 무한 돌봄 110가정에 전달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8회 청소년 자원봉사국토대장정**



7월 26일~27일 양일간 제8회 청소년 자원봉사 국토대장정을 실시했다. 이번 국토대장정에는 총 38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해 24km의 국토대장정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6.25참전유공자 위안잔치**



6월 26일 복지관 강당에서 6.25 전쟁 발발 62주년을 맞이해 지역 내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용사들을 위한 위안잔치를 열어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도시개발공사와 함께하는 행복드림 교육 지원**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후원으로 하남시 저소득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58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전달.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격려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7월 13일~14일 양일간 수영구청 및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연계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5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를 열어 무료 구강검진을 제공했다.

● **미혼모자시설** ●

**사랑들, 개원3주년 기념 추억 만들기**



사랑들이 7월 18일 개원 3주년을 맞아 사랑들을 도와주는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들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으며, 입소자들이 예쁜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추억 만들기 행사도 가졌다.

**아름들, 2012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실시**  
아름들은 7월 11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 기회를 가졌다.

**아침들,  
양육모자조모임 '행복한 엄마들의 노래' 열려**



아침들에 머물렀던 양육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지지하는 자조모임 '행복한 엄마들의 노래'가 7월 25일 아침들에서 열렸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오동통가족 하하하운동회**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5주년 기념가족운동회가 6월 23일 서울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마포구 거주 100여 가족이 참여했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장이 되었다.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아동 역량강화 위한 음악즐거미 개강식**

아산복지재단지원사업으로 8월 17일 다문화가정 아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즐거미' 있는 아이들' 개강식이 진행됐다. 7세~10세 아동 총 11명은 앞으로 1년간 음악즐거미 및 리더십 향상 교육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2년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춘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5쌍의 합동결혼식이 6월 26일 미래컨벤션웨딩홀에서 많은 내빈들의 축복 속에 열렸다. 이 행사는 춘천시의 지원으로 2010년부터 진행됐으며, 매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5가정을 선정, 현재까지 15가정이 결혼식을 올렸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도란도란' 한부모 가족캠프**

8월 17일~18일까지 한부모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란도란 가족캠프'를 서울랜드와 을왕리해수욕장에서 개최했다. 부모님을 대상으로 미술치



료를 통한 자기 이해와 감정 인식 프로그램,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수상레포츠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 **홀트심리상담센터** ●

**대구신흥초등학교 협약식**



대구광역시 신흥초등학교와 홀트센터는 8월 13일 재학생 및 학부모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마을 토요교육 공동체 운영 협약'을 맺었다.

● **전주영아원** ●

**자원봉사자 공로상 수상**



영아원 아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주신 박수자 자원봉사자가 제11회 전국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에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이날 경품추첨에서 받은 대형 LED TV를 기증하는 선행도 펼쳤다.

● **어린이집** ●

**마포어린이집, 물놀이 및 원내캠프 개최**  
7월 20일~21일 양일간 금강산랜드에서의 물놀

이를 시작으로 신기한 미술쇼, 재미있는 영화 보기 등 원내캠프를 개최했다.

**중동어린이집, 수족관 견학**

유아반 어린이들은 7월 18일 씨월드 견학을 통해 책으로만 보던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직접 보고, 닥터 피쉬 체험과 수중 쇼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홀트어린이집, Summer Cool 페스티벌 물축제**  
원아들과 부모님들이 7월 24일 원내 수영장에서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Summer Cool 페스티벌 물축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전국후원회** ●

**강원후원회, 강원여성대회 입양홍보**



강원후원회(회장:신명숙)는 7월 12일 영월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17회 강원여성대회에서 입양가족 사진전시 등 참가한 시·군 단체협의회에 입양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광주후원회, 일산복지타운 방문**



광주후원회(회장:전향자)는 6월 21일 회원 28명이 홀트일산복지타운을 방문해 홀트의 역사가 살아있는 기념관과 장애우들의 생활공간, 작업장 등을 돌아보고 후원금도 전달했다.

**경북후원회, 세계바다국제연극제 개막식 자원봉사**



제12회 세계바다국제연극제가 포항시 북부해수욕장 북부비치야외극장에서 8월 8일 개최되어 홀트경북후원회 10명의 회원님들이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진행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전후원회, 모국방문단 한국문화체험 제공**



대전후원회에서는 7월 1일 대전을 방문한 미국 모국방문단 성년입양인과 가족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과 한국음식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나누었다.

**홈페이지 리뉴얼**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www.holt.or.kr)를 리뉴얼해 8월 오픈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신청과 진행현황 확인이 추가되고 후원자분들이 기부내역 확인과 관리가 보다 편리하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홀트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복지활동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바자회**

의료아동수술비지원을 위한 '사랑의 나눔 바자회'가 10월 19일 개최됩니다. 바자회 물품지원 및 참여를 기다립니다.

- **입시** : 2012. 10. 19(금) 09:00~16:00
- **장소** : 홀트아동복지회 신사옥 - 양화로 19 (구. 합정동 382-44) 합정역 8번 출구 도보 100m
- **품목** : 의류, 생활용품, 완구류, 유아용품, 잡화, 도서, 식품류 등

# 홀트아동복지회 새 집 마련기



1968년



1980년



2003년



2012년 신사옥

홀트아동복지회의 터가 되었던 본부 사옥(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14)은 1968년 9월, 대한기독교개혁신교회 지원으로 건축되어 3층과 5층을 임대해 사용한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974년 12월 그 옆에 신관을 건축하고 1975년 개혁신교회와 업무합병하면서 구관도 양도받아 진짜 홀트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1956년, 사업 시작 초 구세군 건물, 충정로, 녹번동, 아현동을 거치며 12년이 지나서야 갖게 된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 표기도 '홀트아동복지회 앞'이라고 할 만큼 40년 이상 자리 잡아온 홀트 사옥은 지역의 상징적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희로애락을 같이 한 홀트 집은 2009년 마포구 도시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쉬움도 겪었으나 현재는 토지보상으로 반짝 반짝한 새 집이 지어졌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주를 마친 직원들은 '러브하우스' 방송이 생각날 만큼 깨끗한 사무실에 살짝 부적응(?) 기간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온 층을 사로잡았던 화장실 내음(?)도, 겨울이면 딱딱 울렸던 파이프라디에이터 소리도 새삼 그리울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으로 예쁜 집을 갖게 되었지만 집터는 옛 터를 고집한 만큼 홀트아동복지회 직원들은 각오를 다잡아봅니다. '사랑의 시작' 홀트아동복지회가 품었던 꿈!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 꿈을 위해 다시 달리겠습니다.

### ● 홀트 본부사옥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 02-331-7000

### ● 층별 안내

- 6층 : 이사장실 / 회장실 / 법인사무국 / 강당
- 3층 : 기획팀 / 총무팀 / 경리팀 / 전산실
- 2층 : 국내입양팀 / 국외협력팀 / 수속팀
- 1층 : 후원팀 / 홍보팀 / 복지지원팀 / 아동양육팀 / 홀트여행사
- B1 : 홀트의원 / 아동용품실

홀트의 후원금은 다양한 계층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행복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 아동양육 후원 부모가 없는 미숙아,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장 학 후 원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교육비, 국외 입양인 모국연수 지원
- 국내아동 후원 결식아동, 미혼양육모 가정 양육비, 의료비 지원
- 국외아동 후원 국내 다문화 가정아동 및 북한아동, 빈곤국 아동 지원

## 후원신청 안내

### 정기후원 방법

**자동이체(CMS)**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매월 25일 통장(신용카드)에서 약정후원금이 자동이체 됩니다.

**신용카드 · 핸드폰 포인트 기부**

### 회원가입·안내

[www.holt.or.kr](http://www.holt.or.kr) / 02-331-7073-4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체의 특성에 맞는 캠페인을 공동 기획해 진행합니다.

### 일시후원 방법

**사랑나눔상자**  
가족, 친구와 함께 또는 사무실, 학교에 비치해 나눔을 시작해보세요.

**사이**  
수익의 일부를 후원하는 기업장 및 기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한 기부**  
돌, 결혼식, 취업 등 기쁘고 좋은 날을 더 뜻깊게 '나눔'으로 남겨주세요. 기념패를 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479037-01-000461  
예금주 | 홀트아동복지회

## 우 편 엽 서

###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주소 | \_\_\_\_\_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요금  
발송유효기간  
2011.1.1~2013.12.31  
마포우체국  
승인 제40112호

###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후원팀

1 2 1 - 8 8 5

### 후원신청 엽서

후원신청 시 절취선을 잘라 봉합하신 뒤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http://www.holt.or.kr)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http://m.holt.or.kr)

